

‘시도시 광주’ 무색...중소 IT기업 “개발자가 없다”

수도권 이직 ‘비밀비재’ 경력자 모시기 경쟁에 ‘급여 거품’ 현상 “사업 규모 유지도 벼락...개발자 사관학교 전략 막기 대책 절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가 무색하게도 지역 중소 IT기업들은 개발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AI 관련 산업이 확장하면서 개발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광주에 있던 기존 개발인력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숙련된 개발자를 채용할 수 없어 ‘올며 겨자 먹기’로 신규 직원을 뽑아 일을 가르쳐 놓으면 경력을 쌓아 수도권으로 이직해 떠나버리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이처럼 지역 내 개발자 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개발자를 서로 모셔가기 위해 연봉을 올려주고 ‘스카웃’하는 일도 빈번해져 급여에 거품이 끼는 ‘급여

버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외치고 있는 광주가 개발인력 부족으로 지역 IT기업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광주지역 IT업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인공지능(AI)과 웹 프로그래머, 서버 엔지니어 등 IT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3개월 전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3년차 직원이 서울의 한 회사로 이직했다.

이직을 막기 위해 서울의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에 급여를 맞춰주겠다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직

원을 붙잡지 못했다. A사 대표는 “워낙 개발자가 귀해 연봉을 올려주더라도 붙잡아두고 싶지만 남아 있으려는 직원이 없다”며 “서울에서도 스펙을 쌓아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는 분위기가 탓에 기회가 오면 다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의 창업 2년차의 스타트업 B사는 올해 10명의 개발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3명밖에 뽑지 못했다. 그마저도 3명의 개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애를 먹었다. 경력자 있는 개발자는 ‘귀한 몸’이라 채용할 수도 없었고, 입사지원서를 넣은 구직자들은 모두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다.

B사 대표는 “학원에서 코딩을 배워 개발자로 갖춰입한 신규 직원들은 사실상 실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며 “직접 일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일을 배우면 1~2년 뒤 또 떠나

버리기 일쑤다. 이게 광주지역 IT업계의 현실이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IT기업 C사는 개발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이력서를 받아 보는 것도 힘들다고 했다. 당장 채용이 시급해 또 다른 광주지역 IT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에게 접촉,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스카웃 제의를 한 상태다.

C사 대표는 “스카웃 제의를 하고 벌써 수개월째 접촉하고 있지만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개발자들의 몸값만 계속해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 내 개발자 부족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AI관련 산업 확장하면서 기존 오래된 시스템들이 고도화돼 중급 이상 실력을 갖춘 개발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중급이

상 개발자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받았던 스타트업과 IT 대기업에서 개발자를 흡수, 수도권 중견 기업들은 지방의 인력을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력을 갖춘 개발자들이 보다 높은 급여와 조건을 찾아 이탈하면서 지역 기업들은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없을 뿐더러, 기존의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도 벅찬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광주를 비롯한 지방이 개발인력을 키워내는 사관학교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며 “실력을 갖춘 양질의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AI, IT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고용지원 등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흥 승원팰리체’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승원종합건설(회장 김승구)의 ‘고흥 승원팰리체 더 퍼스트’가 21일 열린 ‘제26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중견건설업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와 매경미디어그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도주주택공사 등 공동 후원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1996년 제정된 이후 국내 주택건설부문 최고 영예의 상으로 꼽힌다.

주택이 단순한 거주 기능을 넘어 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유도, 동시에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3차례에 걸친 심사에 실제 거주하는 입주 주민들의 평가까지 거친다는 점에서 명실상부 살기 좋은 생활공간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고흥 승원팰리체 더 퍼스트’는 고흥군 남계택지지구 3블럭에 위치한 단지로, 고흥 최초의 명품 아파트로 꼽힌다.

지하 1층, 지상 14층 4개동 총 220가구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흥의 신중심지인 남계택지지구에는 고흥군 신청사 개청 이후 인근 상업지역과 거주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행정기관 외에도 법원과 마트, 전통시장, 터미널 등 중심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도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탁월한 입지와 함께 선호도 높은 84㎡(A·B타입) 단일 면적으로 구성, 전 세대 남향 위주 배



‘제26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중견건설업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뒤 김준원(왼쪽) 사장 등 승원종합건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치에 기존 주차장보다 폭이 넓은 확장형 주차장도 제공된다. 백화점식 주차관제 시스템도 적용됐고, 피트니스센터와 맘스스테이션 등 커뮤니티 공간까지 조성했다.

내부는 친환경 마감재, LX창호 등을 비롯해 쾌적한 생활을 위한 예코 시스템과 최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관 내 에어샤워 시스템, 각 방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단지 내 미세먼지 신호등, 조명·난방·가스검침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

크 기술이 적용됐다. 이밖에 에너지 효율과 내진 설계 모두 1등급으로 설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구 승원건설그룹 회장은 “행복을 의미하는 ‘팰리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정성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주거공간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대표 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테슬라 비트코인 대량 처분...가상화폐 ‘약세’

최근 다소 살아나던 비트코인 가격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대량 처분 소식에 약세로 돌아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때 24시간 전보다 4.2%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1.6%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21일 오전 12시19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2.21% 내린 2만2812.8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주 들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능력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증시와 동반 회복세를 보였지만, 테슬라의 매도 소식이 꺾였다.

앞서 이날 테슬라는 보유한 비트코인의 75%를 2분기에 처분했다고 공개했다.

테슬라는 작년 2월 15억달러(약 1조97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사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태국 등을 기반으로 한 코인 거래소 집맥스가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이로 인한 주요 동업자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인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집맥스의 이번 결정이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는 가상화폐 금융기관 바벨 파이낸스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바벨 파이낸스는 ‘코인 런’(예치해둔 코인을 찾기 위해 몰려드는 현상)으로 인해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다 지난달 인출 중단을 선언했다. 싱가포르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드도 이달 초 고객의 코인 인출을 중단하면서 법원에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기아,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26~28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기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점검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전국 서비스 거점을 방

문하기 전 ▲현대차 ‘마이현대’(myHyundai) ▲기아 ‘마이기아’(MyKia) ▲제네시스 ‘마이제네시스’(MYGENESIS) 등 각사 통합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내려받아야 한다.

무상 점검 쿠폰은 이날부터 25일까지 5일간 받을 수 있으며, 총 4만5000장(현대차 3만장·기아 1만장·제네시스 5000장)을 선착순 발급한다.

이후 현대차 고객은 1317개 블루핸즈(직영 하이테크센터 미실시), 기아 고객은 전국 18개 서비스센터 및 778개 오토큐를 방문해 쿠폰 제시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디지털 금융역신 앞장선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지난 20일 JB금융그룹 1기 디지털 통합연수를 수료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기획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은행 제공>

효성티앤씨, 친환경·스마트 섬유 스타트업 키운다

지분투자·기술개발 지원

효성티앤씨는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섬유 및 ESG경영에 특화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오픈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픈노베이션은 대기업이 스타트업 등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모델 및 핵심 기술을 혁신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경영기법이다.

무역협회는 오랜 기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을 연결, 효성티앤씨는 지분투자자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기반, 생분해 장섬유 ▲리사이클 섬유 원료 공급 ▲친환경 염색 및 가공기술 등 친환경 섬유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과 ▲웨어러블 섬유 기술 ▲IT 융합 섬유 신기술 등 혁신적인 스마트 섬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 및 에너지 절감 기술 ▲지속가능성 등 ESG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로 효성의 기존 사업을 혁신하고 신규 사업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28일까지 무역협회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이노브랜치’(https://innobranch.com/user/challenge/detail?id=78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효성티앤씨는 무협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1대1 미팅 등 구체적인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사업 협업을 통해 신제품 공동개발, 기술개발 지원, 기술검증, 지분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거래소,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테마지수 4종 발표

한국거래소는 유망산업 테마별 주요 기업을 구성 종목으로 하는 테마지수 4종을 25일부터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4종은 자율주행차·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관련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원격진료·헬스케어 장비 등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네트워크·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경제 인프라 테마인 ‘디지털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해당 분야 및 원자력 발전 기술 테마인 ‘차세대 에너지’다.

이번 테마지수는 거래소가 글로벌 금융정보 분석업체인 팩트셋(FactSet)과 협업해 산출하는 지수로, 테마를 산업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각 산업 분야 해당 기업 중 시장규모와 유동성을 갖춘 종목으로 구성했다.

거래소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미래 전략산업 및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테마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자 주요 테마별 지수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409.16(+22.31) |
| ↑ 코스닥 | 795.15(+4.43) |
| ↓ 금리(국고채 3년) | 3.294(-0.002) |
| ↓ 환율(USD) | 1307.70(-5.20) |